쌍촌동 호남대 부지 매물로 나왔다

내일 최고가 입찰 … 천안 부지 합쳐 1086억 내놔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입지조건 좋아 건설사들 눈독

광주지역 최고의 아파트 부지로 평가받는 서구 쌍촌동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가 1000억원 대의 매물로 나왔다. 생활편의 및 교통환경이 우수한데다 녹지가 잘 조성돼 지역 주택 건설사는 물론 대형 건설업체마저 군침을 흘리던 곳이다. 하지만 입찰 공고 기간이 짧고, 일반 건설사가 쉽게 매입하기 힘든 땅이 매각대상에 포함돼 특정 건설사와 사전 담합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호남대학교는 지난달 29일 '온비드'(www.onbid.co.kr)에 6만7278㎡(2만평)에 이르는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 및 부속건물, 수목과 함께 계열사인 우림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한 천안시 성거읍 문덕리의 토지 67만1223㎡(20만평)와 건물, 수목을 일괄매각공고했다. 입찰 참가등록은 6일, 입찰서 제출일은 7일 오후다.

매각은 가장 많은 금액을 써낸 곳이 주인이 되는 일반 경쟁입찰방식으로, 호남대 측은 일괄매각금액으로 1086억1436만5100원을 제시했다. 호남대 부지가 700억원 규모이며 천안의 토지가 380억원 대로 추정된다. 천안의 땅은 과거 호남대가 학교 설립을 위해 매입했으나 인가를 받지 못한 것을 이번에 쌍촌캠퍼스 부지와 함께 매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는 상무지구와 가까운데다 광주도시철도 1호선과 맞닿아 있다. 주변 자연환경이 우수해 아파트 단지로 개발될 경우 광주지역 최고의 주거단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중반부터 호남대와 주택건설사 간 '물밑접촉설'이 꾸준히 흘러나오기도 했다. 한 지역 주택건설사 관계자는 "아파트를 짓게 되면 대형 주택형을 포함해도 1000여가구에 이르는 대단지로 조성할 수 있다"며 "광주에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최고의 입지"라고 설명했다. 실제 쌍촌캠퍼스 인근 한 고급아파트의 실거래가가 3.3㎡당 1000만원을 호가할 만큼 입지 여건이 좋다.

광주에서 보기 힘든 '커다란 덩치' 탓에 입찰엔 소수의 건설사만 응찰할 것으로 보인다. 또 매입 후에도 아파트를 짓기 위해선 각종 인·허가를 비롯해 남아있는 행정절차가 만만치 않아 자금력이 없으면 입찰 참가도 쉽지 않다. 현재 전국구로 성장한 지역 중견건설사 2곳 정도가 후보로 거론된다.

향후 아파트가 들어서면 막대한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특정 건설사와 호남대가 미리 입을 맞춘 뒤 형식적인 매각공고만 낸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도 있다. 최고가를 받기 위해선 되도록 많은 응찰후보를 모아야 하는데, 업체들의 한 해 업무가 종료되는 29일 공고를 낸데다, 입찰참가등록일인 6일과 휴일을 제외하면 공고 기간이 닷새에 불과하다. 천안 토지의 경우 영농법인 소유로 전답과 임야가 섞여 있어 일반 건설사가 소유권 이전을 받는 것도 힘들다. 천안 토지를 입찰받아 건설사 입맛에 맞는 용도로 쓰기 위해선 다른 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컨소시엄을 꾸려야 한다.

한 지역 건설사 관계자는 "상당수 건설사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었으나 공고를 보고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입찰을 포기하는 추세"라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쌍촌캠퍼스의 경우 워낙 좋은 입지여서 3.3㎡당 분양가격이 1000만원대를 쉽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15.75 (-10.69)
▼ 금리 (국고채 3년) 2.12% (-0.02)
▲ 코스닥 561.25 (+7.52)
▲ 환율 (USD) 1109.90원 (+6.40)

"소통·화합으로 신뢰 공동체 만들자"

광주상의, 신년인사회

광주상공회의소가 5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2015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과 윤장현 광주시장, 우기종 전남도 정무부지사를 비롯, 지역 국회의원과 기관단체장, 기업인 등 6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인사회에서 참석자들은 새해를 맞아 소통과 화합의 정신이 지역사회 곳곳에 뿌리 내리도록 지역역량을 한데 모으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박 회장은 신년사에서 "광주·전남은 지난해 570억불에 이르는 수출실적을 기록했고, 국제광산업전시회와 광주비엔날레, 세계인권도시포럼 등 다양한 국제행사들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제2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한 해였다"며 "모든 성과는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지역민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참석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어 "올해는 KTX 호남선 개통과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등 대규모 국제행사와 인프라 확충의 다양한 호재가 산재해 있다"면서 "기회를 잘 살려 광주·전남이 '가장 살기 좋은 지역, 가장 방문하고 싶은 지역 1위'로 만드는 것을 우리 모두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전남 휘발유값 '뚝뚝'

1400원대 주유소 속속 등장

국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값이 ℓ당 1500원대에 진입한 가운데 광주와 전남지역에 1400원대 판매 주유소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국제유가 하락분이 시차를 두고 국내에 반영되는 중이어서 추가 인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5일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현재 광주시 광산구 평동 제일주유소가 보통휘발유를 1479원에 판매하는 등 1400원대 주유소가 늘고 있다. 전남에서는 순천 우석로 순천제일주유소가 1489원으로 최저가를 기록하는가하면 광양 순광로 SK남강주유소가 1493원에 판매하는 등 전남 지역 1400원대 판매 주유소가 10곳이 넘었다. 지역 주유소 휘발유 평균값 역시 광주가 1561.876원을 기록했으며 전남은 전날보다 3.56원 하락해 1579.62원을 나타냈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최근 국제유가는 주요국 경기지표 악화, 유로화 대비 미 달러화 강세, 미국 쿠싱지역 원유재고 증가 등으로 여전히 하락하고 있다"며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추가적인 하락 압력을 계속해 받게 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값은 지난 29일 ℓ당 1599.48원으로 5년7개월 만에 ℓ당 1500원대에 진입한 이래, 이 날 현재 전날 보다 1.80원 하락한 1575.00원을 기록했으며 충북 음성의 상평주유소가 3주째 1385원으로 최저가에 팔리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시의회 조영표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5일 오전 파업중인 금호타이어를 방문해 노조와 회사 측에 임단협의 평화적 해결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금호타이어 임단협 장기화 되나

오늘 노사 32차 본교섭

시의회, 평화적 타결 호소

해를 넘긴 금호타이어 노사의 2014년 임금단체교섭 협상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광주시의회 등 지역 여론이 평화적 타결을 바라는 호소문을 잇따라 내놓는 등 조속한 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지만 노사의 주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회사와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지부는 6일 제32차 본교섭을 갖고,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지난해 임단협과 관련,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사측은 현재 경쟁사인 한국타이어에 준하는 임금 수준에 맞춰 최종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워크아웃 이전 수준으로 임금을 회복시켜 달라며 맞서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이전보다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타결은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32차 교섭에서 회사가 어떤 안을 들고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다"며 "결렬될 경우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향후 쟁의행위에 대해 곧바로 논의하겠다"고 강경입장을 고수했다.

사측은 이번 주 노조에 집중교섭을 요청하고, 임단협 타결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계획이다. 노조가 지난달 24일과 25일 이틀간 광주와 곡성, 평택공장 등 국내 생산공장에서 조별 2시간씩 부분파업을 한데 이어 29일과 30일 근무조별로 4시간씩 부분파업을 진행해 매출 손실만 40억원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이날 오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호타이어 노사에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최근 금호타이어가 임금 및 단체 협약 결렬로 갈등을 빚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노사간의 양보와 타협으로 원만히 해결돼 금호타이어가 지역발전과 국가 경제에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농협, 사업자 위한 '탄탄대로Biz종합통장' 출시

농협전남지역본부와 광주지역본부는 사업자 고객을 위한 신상품 '탄탄대로Biz종합통장'을 최근 출시했다.

'탄탄대로Biz종합통장'은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법인의 결제성자금과 사업자금을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특화상품으로, 단기·중장기 계획에 따라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상품 구성을 할 수 있는 맞춤형 상품이다.

단기 결제성자금은 '탄탄대로Biz종합통장'에서 관리하고 매월 사업수익은 '탄탄대로Biz적금'으로 1년 이상의 중장기 거액 사업자금은 '탄탄대로Biz예금'으로 관리하면 보다 높은 수익과 원활한 자금운용이 가능해진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새얼굴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주력"

이 길 성 국민은행 호남남지역본부장

"언제 어디서든 고객을 잊지 않고 최상의 금융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일자로 국민은행 호남남지역본부장으로 부임한 이길성(54) 본부장은 "고객의 기대에 부응해 지역 주민에게 사랑 받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는 본부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호남남지역본부장은 광주 남부지역과 전남, 제주지역 31개 영업점 7개 출장소를 관장한다.

이 본부장은 또 "소외된 이웃을 위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장흥 출신인 이 본부장은 헬싱키경제경영대학원 을 졸업했으며 야탑동지점장, 서현역지점장, 본부 개인여신심사부장을 역임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